낙심한 환자들과 그들이 남겨둔 가족들과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날 공동체를 살아가고 싶다는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박장대소 웃으실 수 있도록 하고 싶다. ♥

지상강좌

호스피스 정책과 관련된 한국호스피스협회의 의견

*다음 내용은 2003년 4월부터 시작되는 "호스피스 시범사업"에 즈음하여 한국호스피스협회의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보낸 내용입니다.

그동안 비 제도권 하에서 많은 어려움을 견디며 묵묵히 호스피스 활동을 감당해 온 민간단체들이 모여 1991년 한국호스피스협회(이하 본회)를 결성하고 우리나라 전체 호스피스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는 본회 입장에서 호스피스 제도화의 첫걸음인 시범사업 시행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으며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이 존중되고 호스피스의 원래 봉사 정신과 일치되며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을 지원, 계도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성화되는 제도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에 속한 모든 회원들이 실제 호스피스 현장에서 오랫동안 축적한 경험들을 토대로 호스피스의 올바른 정신과 그에 따른 제도화 방향에 대한 본회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귀 부에서 '호스피스 복지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데 참조해 주십시오. 그래서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국민들의 삶의 질을 실제적으로 높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제도가 만들어져 요람에서 무덤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명실상부한 복지국가가 건설되기를 바랍니다.

1) 행복하게 죽을 권리

말기 환자와 가족이 원하는 장소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주어야 한다.

모든 유형(병원형, 가정형, 시설형, 주간/day care형)의 호스피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2) 전인적 케어, 인간 평등

호스피스는 한 생명이 살아오면서 맺었던 모든 삶의 복잡한 관계를 후회없이 정리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잘 유지되는 상태에서 생을 마무리 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호스피스는 죽음이 예견되는 모든 말기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전인적 케어가 요구되므로 여러 직능의 종사자들이 세워져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고 힘과 지혜를 모으는 팀 활동이다. 그러므로 호스피스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종사자들이 평등하다는 입장을 존중해 주어 직능 차이에 따라 인권이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 호스피스 제도에 말기 암환자 뿐만이 아니라 말기 에이즈 등 임종이 일정기간(보통 6개월 전후) 예측되는 모든 말기환자를 포함 시켜야 한다.

◇ 의사, 간호사, 성직자, 사회복지사 등 호스피스 종사자들을 평가할 때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인 인력구성의 점수를 정하는데 있어서 모든 직종에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고 구성원 수와 상근 또는 비상근 등 활동 범위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어느 한 직능이 호스피스 활동을 전체적으로 좌우하는듯한 방향으로 제도가 만들어져서는 안된다. 따라서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리체계라는 말은 호스피스한 분야인 '완화의료'에 치우치는 입장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호스피스' 활동 속에 '호스피스 완화의료, 호스피스간호, 호스피스사회복지, 호스피스목회, 호스피스자원봉사'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 보건복지부와 민간단체의 창구는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한국호스피스협회, 가톨릭호스피스협회, 한국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모을 수 있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 호스피스 종사자 교육도 모든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생명사랑

호스피스는 인생 여정에서 가장 절박한 생의 마지막 시간에 서 있는 말기환자와 그 가족의 생명을 돕는 활동이다. 생명을 사랑하는 기본적인 원칙에서 제도가 정착되지 않으면 생명 경시풍조 문화를 더 조장시킬 수 있다. 따라서 호스피스 종사자들이 경제적 이익이나 명예, 권력 등을 추구하지 않고 생명 사랑이 우선되어 활동에 참여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 수가는 포괄수가제가 바람직하다.

◇ 국민건강보험 수가로 호스피스 활동을 100% 지원할 수도 없기 때문에 후원금 제도를 양성화하여 철저히 감독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 비 제도권 하에서 생명 사랑의 마음으로 열심히 활동해 온 기존의 호스피스 종사자들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격려하고 계도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 경제적이며 동시에 효율적인 케어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유형의 장점과 다양성을 살리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 시범사업기관 선정위원이나 평가위원은 생명을 사랑하고 실제 호스피스 실무 경험이 있는 분들이 선정되어야 한다. ♥

(자료제공 : 편집부)

새로 등록한 기관

♧동서호스피스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479-1
대표 : 류승범
전화 : 053)766-0875
팩스 : 053)765-5074
이메일: rysb21@hotmail.com

♧대전호스피스회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183-5
대전 : 전복주
전화 : 042)534-0673
이메일: Jobkju@hanmail.net

♧개인회원 등록

강경아(삼육대학교 간호학과 교수)